

자립준비청년 지원 위해 민·관 '맞손'

전북도 - 8개 기관, 자립준비청년 지원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자립준비청년 취업 위한 16개 '기업 면접의 날' 추진

전북도는 30일 도청에서 8개 기관이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6개 기업이 동참한 '잡아드림(JOB我드림)' 면접 데이'를 열었다.

협약체결 참여기관은 도와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새만금개발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전북은행,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이다.



전북도는 30일 도청에서 8개 기관이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 참여기관은 도와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새만금개발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전북은행,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이다.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는 면접 기술·예절교육, 자립준비청년 지원 기금 연계로 취업역량 강화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 사업 연계 및 사례관리 등을 수행한다.

함께 열린 채용면접 행사 "잡아드림(JOB我드림) 면접 데이"는 (주)코솔

리스 등 16개 참여기업의 정보를 사전공지해 취업의사가 있는 자립준비청년 20여 명이 참여했다. 본 행사는 2022년에 시작해 32개 기업이 참여, 자립준비청년 13명이 취업했다.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경제, 일자리, 주거, 법률 멘

토링 등 자립에 가장 핵심적인 분야를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협력기관의 지원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지역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가 30일 가루쌀 생산단지인 전주우리밀영농조합협회를 방문해 공공비축 매입현장을 점검했다.

도, 가루쌀 공공비축 매입현장 점검

가루쌀 공공비축 매입검사 실시... 12월 31일까지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가 30일 가루쌀 생산단지인 전주우리밀영농조합협회를 방문해 공공비축 매입현장을 점검했다.

발달소비 감소에 따른 쌀 수급균형 달성을 위해 올해 처음 매입하는 가루쌀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검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규격에서 제현율은 일반벼보다 1개 등급씩 완화해 최저한도가 특등은 78%, 1등은 74%, 2등은 65%, 3등은 65%미만이고, 등급에 관계없이 수분은 14% 이하, 타품종 혼합율은 3%이하여야 한다.

매입가격은 일반벼 공공비축미와

동일(10~12월 수확기 산지쌀값 평균)하며 중간정산금도 공공비축미와 동일한 금액을 매입 직후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올해 도내 가루쌀 재배면적은 17개 단지에 780ha로 전국 2,000의 39%로 최대면적을 점유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확면적은 497ha(64%)로 11월 7일까지 수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중훈 부지사는 "전북도에 유리한 논농, 가루쌀 등 대체 작물을 적극 육성해 농민의 소득은 늘리고 쌀 생산량은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개최... 공무원 채용 소통·교류의 장

광주·전북·전남 등 6회 개최... 김승호 인사처장, 직접 대학·고교 찾아 소통

공무원 채용 현장의 소통과 교류 무대인 '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가 호남권 일정을 시작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27일 전북 군산대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전북 전주, 전남 목포 등에서 '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27일 군산대, 30일 광주시 내 특성화고 등 13개교, 11월 1일 광주시 광주여대, 2일 전북 전주대, 3일 전남 목포대, 12월 18일 광주시 장덕고 등에서 총 6번의 행사가 개최된다.

올해는 특히 인사처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개최마다 행사장을 직접 찾아 청년·학생, 학교 관계자 등과 소

통하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번 호남권 일정에도 김승호 인사처장, 인재채용국장, 인사혁신국장 등이 현장을 찾는다.

30일 광주시 내 13개교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행사장을 찾은 김승호 처장은 13개 특성화·마이스터고 재학생 약 120명과 교장단을 만나 공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을 나눴다.

지난달 29일 충청권에 이어 호남권 행사에도 직접 방문해 우리 사회 미래 주역인 청년들과 마주하고, '취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재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채용 현장 목소리를 경청한

것이다.

학생들과 대담이 끝나고 김 처장은 교육 현장에서 이들을 직접 지도하는 학교장 및 교사들과 만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공직 진출, 인재교육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처는 정책 현장에서 답을 구할 것"이라며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통해 인사처의 구성원이 현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박람회'는 공직 채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역 청년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3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 9월 충청지역에서 개막해 10월 영·호남, 11월 호남·강원, 12월 영남 지역까지 3개월간 총 35회에 걸쳐 전국 14개 대학, 14개 고등학교에서 순회, 개최된다.

올해 행사에는 △공직 선배 특강 △신규 공무원 1:1 상담 △공무원 시험 문제 체험 △공직에 전하는 말 작성 등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경찰·소방, 군과 고용복지센터, 상공회의소 등에서도 행사에 참여하며 각 기관 채용정보 및 청년 정책 등을 홍보하는 등 다채롭게 열리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 고창군 한우농가 림피스킨병, 도내 2번째 확진

해당농가 한우 54마리 살처분·반경 10km 내 한우농장 소독 및 방역·백신 우선 접종

전북도가 고창군 해리면 소재 한우농장(54두)에서 도내 두번째로 림피스킨병이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고창군 해리면 한우농가

에서 공수의 농가 예찰 중 피부 병변 등 임상증상이 발견돼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검사를 통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

됐다.

해당 농가 한우 54마리에 대해 살처분 명령을 내렸고,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한

우농장 166호(7,757두)에 소독 및 방역 조치를 취하고 림피스킨병 백신 우선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림피스킨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농가에서는 해충방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모바일 전북사랑도민증 신청하세요"

전북에 대한 관심 제고·향후 미래인구 증가 도모

전북도는 타 지역민들의 전북에 대한 관심 제고와 향후 미래인구 증가를 위해 전북의 거주자 대상 '모바일 전북사랑도민증 발급'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북사랑도민증'은 당초 전북 출생도민 및 과거도에 실제로 거주했던 연고자 중심으로 시행했으나, 제도 활성화와 타 지역민들과의 교류 확대를 위하여 '모바일 전북사랑도민증'의 발급을 확대·대상을 크게 넓혔다.

전북사랑도민증은 전북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전북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모두 도내 관광·문화시설 할인(31개소) 및 전북 투어패스 1일권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도내 방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실적을 3회 이상 인증하면 전북투어패스 2일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북사랑도민증은 '전북사랑도민' 홈페이지(<https://lovecard.jb.go.kr>)에서 별도 서류없이 바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전북 외에 거주하는 출생도민 및 연고자들은 도내 연고 입증을 통해 카드형 전북사랑도민증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영삼 전북도 청년정책과장은 "지방소멸을 막기위한 새로운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생활인구 증가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전북사랑도민증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타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